

金明浩 牧師 說教 詩 모음 1

默禱도의 旅行 행

글머리에

나는 1988년 미주 중앙일보 후원, 미주 기독교 문인협회의 신인상 모집 시 부문에 당선하고 당선 소감을 이렇게 썼다. “욕망은 있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답답함을 경험하는 세월의 연속입니다. 갑작스런 당선 통지를 받고 잠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점점 글쓰는 것과 멀어져 가려는 마음에 호된 자극을 주는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해야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써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거룩한 시의 영감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뽑아주신 함동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친구 총순태 시인의 격려를 감사합니다. 선배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에 감사드립니다.”(1988년 9월 4일자 미주 중앙일보).

그리고 세월이 15년이 흘렀다. 2000년 5월에는 첫 시집 “들풀”을 도서출판 한림원에서 출판하였다. 그때 후기에서 나는 설교시집을 출간할 것이라고 썼다.

아마도 설교 시집이라는 시집은 출판 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목회자이다. 기독교 문인협회에 시가 당선이 된 후에 시를 더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목회자로 일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너무 힘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목회와 시를 함께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시인으로 양명(揚名)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시를 좋아하는 목회자로서 이 둘을 함께 하는 길을 생각한 것이 설교를 시로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1993년 10월부터 매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고 그 내용을 시 형식으로 요약하는 일을 했다. 그 일을 아직도 계속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은 시는 설교에 인용한 시들이 아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을 시로 적은 것이다. 그래서 설교 시라고 하였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시를 읽는다. 그러면 설교가 시로 요약된다. 시를 기억하면 설교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만 읽으면 내용이 난해하게 된 것이 많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제안을 따라 이렇게 시가 된 설교의 제목과 그 설교의 근거된 성경 본문을 적었다. 그렇더라도 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책을 엮기 위하여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꽤 손을 대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또 설교의 내용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다. 다윗의 영감으로 시를 쓸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말씀을 설교로 선포하고 그것을 또 간단한 시 형식으로 표현하여 성도들이 기억의 창고에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쓴 것은 구약 시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 형식을 빌어 기록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설교를 듣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교할 때 혹시 이용할만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주제넘은 바람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시로 요약 표현하면서 스스로 감동하는 순간들을 맛보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독자들이 필자의 감동에 같은 충량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할 수야 없겠지만, 독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문학의 형식을 빌어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식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시로 적는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것을 출판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다.

이 책에 수록된 것은 1993년 10월부터 1996년 말까지 쓴 것들이다. 그 후에 쓴 것이 거의 200편이 된다. 그것들도 정리하는 대로 출판할 생각을 하고 있다.

한 목회자의 시로 표현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 독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에 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다.

교정을 보며 좋은 의견을 준 하정아 집사님과 내 사랑하는 딸 은향에게 감사하고, 출판을
맡아 주신 도서출판 한림원의 김용우 사장님과 출판에 수고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
며, 거듭 나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자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이런 형식으로도 표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글머리를 대신한다.

2002년 10월 10일
미국 산호세 서재에서
주의 종 김명호 씀

차례

1. 은혜의 날

예수님 손에
에바다
마음
정직한 영
은혜의 날
성소 헌당
한알의 밀이
유칼리 나무
바다
분위기
속임
亞流頌
만나며 사는 나날
기념
사회(社會)

2. 깨끗한 생활

길에서
죽인 머리
말소리
백지 세월
안식일
번제물
이름
욕심
속이지 않는 자
언행(言行)
감사하는 사람
깨끗하게 살고 싶다
아는 길
삶의 향기
노래하며 살리라
그릇 2
몰라도

3. 둑도의 여행

바른 식사

먹고 마시는 뜻
默禱의 旅行
성만찬 기도
삶이 되게 하소서
산 기념
새 포도즙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만찬
성만찬 예배

4. 복음 가족

울타리
복음 가족
즐거운 아기
어린이 봉헌
가족
옛날 이야기
애憎의 조각
이별 없는 곳
외국인
돈

5. 사랑의 일방통행

시험의 돈
부활
식별
부탁
구별
이슬
또 한번의 십자가
삶과 죽음
사랑의 일방통행
종말
정답
땅에 쓰시니
복음의 오해

6. 믿음의 선인들

아브라함
이삭
하와
언약의 아들
바나바

야곱
가인과 아벨
아담
에녹

7. 아름다운 교회

교회
안내자
진주 문
열매 이야기
리모트 콘트롤
돌 중의 하나
낙원의 화원
살았다는 것
산 교회
사명
승전비
조화(調和)
남은 자손
기다림
허전한 마음

8. 기도의 행복

기원
나무 이야기
소망
아름다움
솟아나는 샘
연습하는 삶
꽃이고 싶네
박제(剝製)
기도
크리스마스 날의 기도

1. 은혜의 날

예수님 손에

복음서를 펴고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나는
유대 땅 먼지 나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

문둥병자 만지시며
깨끗하게 하실 때
그 손길 내 가슴도 스치며
전율을 일으킨다.

귀머거리 귀 열리고
장님 눈 뜰 때
그의 말씀 듣는 귀 트이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참 이스라엘 된다.

죽은 자들 살리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 앞에
내 죽은 모습 비로소 발견하고
새 생명 구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따르다가
피땀 흘린 것세마네
십자가 앞에 와서
그제야 내 마음
예수님 손에 놓고

부활의 그 아침
빈 무덤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영생으로 일어선다.

1993년 12월 10
설교제목: 마음 다스리기
본문: 빙 2:5-8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은
듣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데
우리는
듣기를 그친 사람들.

사방의 소리 너무 많아
듣는 일에 지쳐서
먹어버린 귀인가

쌓아 둔 욕심 너무 커서
마음을 막아
들리지 않는 귀인가

고칠 마음 전당(典當) 잡하고
허영과 쾌락을 사(買)는 재미에 흘려
진리를 욕으로 여기며
닫힌 귀여

오늘
회개하고
에바다.

1993년 10월 15일
설교제목: 듣기 훈련
본문: 막7:31-37

마 음

마음이
어디 자리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도
그대 눈물 흘리는 것보고
가슴이 미어졌었네.

뵈지 않고
소식 없어
온 종일 그대 생각 떠나지 않고
전화 벨 소리에 가슴이 떨리네.

생각은 머리에 있어도
떨림은 가슴으로 밀려오네
미어지는 가슴이 마음이네.

1993년 12월 10일
설교제목: 마음 다스리기
본문: 빌2:5-8

정직한 영

믿음의 조상도
세상 권세의 형포 앞에
거짓을 꾸몄다.

수제자 베드로도
체면 때문에
외식에 빠졌다.

세상은
거짓이 피난처라고
오늘도 힘써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참말을 하시고
부활하여 진리를 보여주셨다.

영으로 난 성도들
세상이 위협해도
정직한 영은 항상 정직한 영

순간 순간
달려드는 유혹 앞에
차라리 죽더라도
진실을 연습해야 한다.

1993년 12월 17일
설교제목: 정직성 훈련
본문: 시 24:1-6

은혜의 날

구유
애굽
요단강
광야
마을과 마을
겟세마네
곧고다

주님은
계단을 오르듯
그 결정에서
부활로 아침을 열어

충만한 햇살 넉넉한 바람 주어
가슴 부풀도록 숨쉬며
빛 되어 걷게 한다.

눈길에 들어오는 풍광이 아름답고
만물의 출렁이는 소리
새 노래 되어 싱그럽다.

눈감으면
귀 열리고
아직은
세미하게 흐르는 하늘 소리
옷 되어 입혀지는 날들이다.

참 생명 얻어
영원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날.

1993년 12월 23일
설교제목: 크리스마스
본문: 고후6:2

성소 현당

모세의 성소가 현당 되던 날
모든 것 갖추고 관유를 부으니
여호와의 영광 가득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이 아무도 없었다.

일년을 백지처럼 펴놓은
정월 초하루
새 각오 새롭게 하지만
연말이 오면 때묻고 구겨진 성소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둘러친 울타리

하나 하나 다시 살펴
또 한번 경결하게 가다듬고
정월 초하루에 다시 현당 한다.

여호와의 영광 가득하여
아무도 못 들어갈 성소 되게
정월 초하루에
모든 것 갖추어 현당 한다.

1993년 12월 29일
설교제목: 새 해 새 성전 현당
본문: 룰40:1-17, 34-38

한 알의 밀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같은 일인데,

죽는 것이 무서워
살대로 못 사는 인생

밀 한 알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밀로 다시 나는 이치를 알아도
아직도 죽는 것이 무서워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목숨

제대로 못 살면서
죽지도 못하는 불쌍한 몸골

죽어야 사는 그 생명
위에서 오는 것
새롭게 배우며

이 한 목숨
참되게 살기 위해
죽기로 결단하고
오늘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다.

1995년 1월 5일

설교제목: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본문: 고전 10:31-33

유칼리 나무

유칼리 나무가
허물을 벗고 있다.

터지는 껌질
아픔이 베어 나오는 표피
튼실하게 굳어지는 들풀

아침 운동 시간에
기대어 서기도 하고
흔들고 밀고 당겨도
의연하기만 한 나무가
또 한 세월을 자라고
구각(舊殼)을 벗고 있다.

터지고 벗겨져 떨어진 껌질 속에
성큼 자라난 세월이
빈 채로 담겨 있고
맡없이 성숙한 자태로
나무는 우람하다.

하루하루
나이테가 감기면
허물을 벗는 아픔은
유칼리 나무만의 것이 아니다.

1995년 5월 5일

설교제목: 네 양떼는 어디 있느냐?

본문: 렘13:20-25

바 다

바람과
즐거운 유희가 있다.

포효하는 환희는
천지를 암도하고

신들린 듯 춤추는 율동으로
은빛 미늘을
눈부시게 드러낸다.

광희(狂喜)를 즐기고
바람이 작별을 고하면
잔잔한 물결

햇빛에 은린(銀鱗)을 흔들며
바다는
어린 양처럼 양순하다.

바다는
무겁게 가라앉아
흔들리지 않는다.

1995년 5월 19일
설교제목: 바 다
본문: 마14:25-33

분위기

우거진 숲 속
우람한 봄우리
거센 바람 소리에
압도하는 힘이 있다.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발 담그고 앉아
푸른 하늘을 보는 눈엔
아련한 향수가 어리고

향훈이 스미면
향기로운 꽃밭이
가까이 있음을 안다.

눈앞으로 다가드는
아름다운 빛깔
얼굴에 즐거운 주름이 인다.

물댄 등산 같은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라.

깨끗하고 푸근한 말씨
리얼락 향기 같은 미소
용솟음치듯 싱그러운
그런 생명이 되게 하라.

그대 있는 곳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그대가 바로 천국이리라.

1995년 8월 25일
설교제목: 분위기
본문: 왕상18:20-24

속임

가장 정직하게
자기를 속이고
가장 순진하게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생활의 다반사에서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

동정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훗날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자신의 동정과 봉사를 생각하면서
씁쓸하게 동정의 값을 예산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것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신앙적이고
현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언제까지 속이고 있을까?
언제까지 속으며 있을까?
자신이 죽기 전에는
언제나 그렇겠지.

1995년 9월 22일
설교제목: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 마19:16-22

亞流頌

친구여
어차피
모방의 세월인데
멋진 본을 찾아보세.

어쩔 수 없이
흉내내는 삶인데
훌륭한 분을 흉내내어야지.

한 삶이
주위의 영향으로 꼴 지어지는데
가장 사람다운 삶을 이룬
그런 한 분을 흉내내어 산다면
언젠가
그 형상 이루어지지 않겠나.

멋진 본 찾아
아류가 되는 일을
누가 탓하겠는가.

여기
하는 보좌 떠나
죽도록 남 사랑한 한 분이 있어

어차피 모방의 세월에
어쩔 수 없이 흉내내는 삶을
바로 그처럼 살아보라고 권하신 다네.

몇 번씩 하던 결심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모방하는 삶으로
차라리
그분의 훌륭한 아류가 되어보세.

1996년 5월 17일

설교제목: 모방 훈련
본문: 고전 11:1

만나며 사는 나날

사람은
아무도 홀로 살 수 없는 운명으로
나날이 만나면서 산다.

끄떡 머리 인사로 지나치는 인연도
미소로 바라보며 “안녕”하는 인사도
마음에 색칠을 한다.

햇살 드는 밝은 색이든지
먹구름 낀 음산한 색같이든지
채색하며 사는 하루하루

마음의 캔버스에는
하루하루를 살며 만나는 사람들이
그려 준 그림과 색깔로 혼란한데,

나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 주나
어떤 채색을 하고 있나

내 마음의 그림을
그 채색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1996년 5월 31일
설교제목: 네게 하신 큰 일을 말하라.
본문: 막5:18-20

기념

벽에

지난날을 회상하는
많은 사진들을 걸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며
감개에 젖는 얼굴

유물을 귀하게 여기는 천성이 있어
역사의 잔해(殘骸)를 소중히 간직하고
옛날을 지금에 봄내는데

스러져 불타 없어질 그것들을
스스로 매긴 가치에 도취하여
문화라는 이름의 척도를 삼고
흘러간 영화를 아쉬워하고 있다.

1996년 6월 28일

설교제목: 기념하는 마음과 생활

본문: 고전 11:26

사 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사회
어울려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애憎(愛憎)은 평평히 맞서 있고

자석(鐵石)의 양극 같이
밀고 당기는 감정으로
홍涌(渾湧)하는 희로애락의 물결.

드러나는
어조와 표정
감정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어조와 표정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미움을 못 박고
죽어라
죽으면 사랑만이 산다
아픈 목소리로
애원하신다.

혼자 살 수 없는데
홀로 사는 세상 같이 살고 싶어하는
욕심스런 존재들.

죽어서 사는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익히고
마주 보는 눈과 눈에
품어 안는 뜨거움이 타오른다면,
감싸는 훈훈함이 넘쳐흐른다면.

1996년 12월 12일
설교제목: 바른 관계의 회복
본문: 요일4:12-21

2. 깨끗한 생활

길에서

길을 걸으면
마주 대하는 사람마다
얼굴에
마음을 담고 걸는다.

표정 속에
쏟아 놓고 싶은 온갖 사연들이
숨어서 엿보고 있다.

양다문 입
헤벌린 입
부릅뜬 눈
시무룩한 볼

행복하고 기쁜 일 보다는
서럽고 고달픈 이야기들
억울하고 화나는 사실들

만 가지 삶의 모습들이
얼굴에 오밀조밀 숨어서
삶을 조종하고 있다.

길가면서
타인의 얼굴을 보고
내 표정을 고친다.

1993년 10월 9일
설교제목: 자기 살피기
본문: 마7:1-5

속인 머리

오늘도

우리는

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

타인의 짐을 쳐 줄 수가 없네.

곧은 목

죽여지지 않는 머리

결코 굽지 않는 허리를 가졌네.

갈바리에 저 십자가를 보라

주님의 속인 머리

언제나 굽히시는 허리

당신의 짐

아무 것도 없어

넓게 벌린 양 팔

그 가슴에

우리의 모든 짐 맡으셨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으니라”

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도리질하는 머리는

죽일 줄을 모르네.

1993년 10월 29일

설교제목: 섬기기 훈련

본문: 뉴22:24-30

말소리

제 모양이
제 소리로 드러나는 섭리

눈은 감겼어도
언제나 열린 귀

숨기고 싶었으나
말 때문에 드러난
베드로의 신분

하루하루
수많은 말 쓸어 놓는 입술은
만나는 가슴마다
제 모습 그려준다.

1993년 11월 18일
설교제목: 말하기 훈련
본문: 요7:46,47

백지세월

사람마다
앞에 놓인 백지 같은
세월이 있다.

배운 기술 없어도
우리는 불가불 匠人들

백지 위에
몸으로
쓰고 그린
지난날의 내용들이
얼굴에 숨붙을 끼었는데

아직도
나날이 펼쳐지는
하얀 세월

이제는
마음의 눈
하늘에 고정하고
천국을
천연색 현실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쓰고 싶다.

1993년 11월 25일
설교제목: 價值觀 定立
본문: 마19:16-21,22

안식일

날이란
지구의 자전하는 현상일 뿐인데
왜 우리는 늙는가?

자라는 것은 즐거운 일
얼마나 큰 소망으로
기대했던 것인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큰 소망의 성취
오가는 날들이 무슨 상관이라?

시간을 사(買)는 비결을 배우면
달려오는 세월은
새로움의 선물일 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때를
모두 사(買)시고

안식일엔
쉼이 거룩한 생명의 본질임을
진지하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가
때를 사(買)는 깨달음의 날이면
새로운 생명의
풍요로움으로 충만하리.

1994년 1월 13일
설교제목: 신앙과 시간
본문: 엡5:16

번제물

돌 제단 위에 제물이 탄다.
하나님은 돌과 흙,
물까지 태우시는데

아직도
혹시 아직도 ...
미련을 떨쳐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들이여

태워야 한다.
살라버려야 한다.
명예와 재물과 건강
유일한 후사 독자까지라도

쓰라리고 비정한 분부는
있는 자(存在)가 되는 오직 한 길이라서
엄마보다 더한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은 분부하신다.

독자를
번체로 드릴 때
비로소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확증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번제단 위에 제물로 불타리.

1994년 4월 14일
설교제목: 아브라함(1)
본문: 히 13:7,8

이 름

내 이름을 내가 쓰고
도장을 찍었을 때
내 전부가 거기 눌려 있지만

이름은
언제나
남이 부르는 것.

내 이름
스스로 지은 적이 없어도
그것은
언제나 나를 굳례 써운다.

하여도
내게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형체뿐
나는 없었고

숨쉬는 형체가
이름으로 불렸을 때
그 때
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름이
쓰이고 불릴 때마다
영육이 색칠되고
형체 없는 실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거기 내가 있다.

1994년 6월 24일
설교제목: 야곱(1)
본문: 창25:21-28

욕심

욕심이 없으면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성질 때문에
죄를 부른다.

두 배를 호흡해도
간직할 수 없고
한번에 두벌 걸옷을 입지 못하고
두 곱을 먹으면 병이 되는데

오관이 자극되어
하고 싶어 못 견디도록
압박 받는 정서는
탐심이 되고
그것은 사람을 죽인다.

죽은 사람에게는
썩는 냄새가 난다.

1995년 7월 12일
설교제목: 시험의 문을 닫아라
본문: 약1:12-16

속이지 않는 자

언젠가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성형 수술도 하고
짙게 화장도 하고

이제는
갓가지 장신구로
성장(盛裝)도 한다.

표리가 이처럼 다른가
꾸밈으로 인쇄된 마음은
범인(凡人)도 읽을 수 있는데

합리화의 묘수로
세속을
거룩이라고 팔고 있다.

진리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이라도

수술,
화장,
성장(盛裝)으로는 안 된다.

시간 속을 지나가는
삶의 자취가
진리로 점철되고

거울 속에
티없이 비치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

1995년 8월 11일
설교제목: 자기를 속이지 않는 밀음
본문: 약1:19-27

언행(言行)

우리 입은
쉽게 대답하는 버릇으로 길들여졌는데
정서는 속에서 머리를 흔든다.

여리고 곧짜기
외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귀는 말씀을 바람처럼 날리고
혀는 입술 봉사로 미끄럽고
수족은 오직 안으로만 굽는다.

이목구비는
자기만을 위하여 예 예
수족은
뜻을 행하는 데는 언제나 아니 아니

맡 잔치만 벌이고 살아온 세월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박제가 된 몸

생명이 떠난지 오래되었어도
펼쳐 일어나 대적하리라고
앉아서 또 한바탕 맡 잔치만 하다가
썩고 있는 나날

시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죽어서 움직이는 것은
산 것도 죽이는 것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생명의 빛이 이처럼 밝은데.

1995년 8월 18일

설교제목: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라
본문: 약2:14-26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짜우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이 그 입술에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미소가 그 얼굴에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격이 그 가슴에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언어에 따뜻한 인정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푸근한 품이 그 태도에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한 음서가 그 생활에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훈훈한 안위가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가슴에 꽂아 준다.

1995년 11월 23일

설교제목: 은혜와 감사

본문: 시116:12-14

깨끗하게 살고 싶다

휴지처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나날이
구질구질 뒤를 쫓아오는데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고
변화된 후
변치 않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다.

해가 바뀌어도
날은 언제나 같은 날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언제나 같은 사람

한결같은 마음과
변치 않는 태도로
깨끗하게 살고 싶다.

앞 뒤 사방에서
두루두루 둘러보며 살라고 권해도
앞만 보고 걸으면서
바르게 섬기고
더 잘 경배하며
깨끗하게 살고 싶다.

대신 죽어 살게 한 목숨
그분 위해 바쳐서
한결같은 마음과 변치 않는 태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살고 싶다.

1995년 12월 1일

설교제목: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본문: 베후 3:9-13

아는 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한줌 흙으로 스러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그 정해진 길을 향하여
비록 짧은 걸음걸이라도
지치지 말고 걸어가자

거둠이 적어도
걸은 만큼 목적지가
가까워지는 기쁨으로

함께 걷는 길동무들
서로 손잡아 이끌고 밀면서
주님 먼저 가셨으므로

정해진 그 아는 길을
아직은 남아 있는 시간에
부지런히 걸어 보자.

1996년 1월 19일
설교제목: 선교 2000
본문: 사54:1-3

삶의 청지기

한번 주어진 삶은
스스로 살수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살아 줄 수 없는
이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

이해와
협력이
아름다운 것은

같은 길 걸어도
서로를 살아 줄 수 없는
고독 때문이다.

한 번 지나가는 세상
종착지에 이르면
긴 여정을
투쟁하며 걸어온 흔적 역력한 얼굴을 향하여

주님은
선한 청지기여
영원한 나라를 관리하라
하신다.

1996년 2월 2일
설교제목: 선한 청지기
본문: 베전4:10,11

노래하며 살리라

세상살이 어려워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이어져도
마음에 노래를 자아내리라

들리는 소리들 두렵고
사방이 사고로 둘려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해는 아직도 밝고
호흡 할 수 있는 공기 충만하니
내 입술에 노래를 끊을 수가 없네

비록 밤이 이르러
사물이 어둠 속에 숨고
분간 할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가도
마음에 있는 생명의 길 밝으니
노래하며 살지 않을 수 없네.

내 삶의 하루하루가
나를 살게 하신 이의 거룩함으로 이어져
만나는 마음들마다
찬미의 샘을 터뜨리기 원하네.

삶이란 엄숙한 것
순간 순간을 경건으로 채우고
피로 값을 치른 내 생명 주인에게
찬양하며 살 수 밖에 없네.

이 생명의 즐거움을
감사와 감격으로 채색하며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해도
노래하며 살 수 밖에 없네.
찬양하며 살 수 밖에 없네.

1996년 4월 13일
설교제목: 찬양하는 신앙 생활
본문: 히 13:15

그릇 2

그릇은

그릇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그릇은 다만

담기 위하여 있을 뿐이다.

속에 담기는 것들로 하여

그릇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릇이 있을 위치가 정해진다.

그릇이

정말 그릇이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비어 있어야 한다.

빈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지면

넉넉히 쏟아 주고

텅 비어

다시 그릇이 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고

결코 그릇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그릇이다.

1996년 5월 24일

설교제목: 자기를 비어

본문: 빌2:5-8

몰라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저주가 되신 것은 사실이다.

사랑의 이유를 몰라도
사랑의 크기를 몰라도
이 큰 구원으로, 우리가
주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하라 하신다.
지체로 합당하게 살라 하신다.
성령의 북소리에 장단 맞추어 노를 저어라 하신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는데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오만을 췄어 버리고

아직도 면 수 있을 때 주의 명예를 메고
피 흘리신 그 사랑에 충성으로 반응하자.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몰라도
사랑에 흘려 몸으로 반응하자.

판단하는 그 날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렇게 흘려버린 내 생활이
또한 사랑이었던 것을 알리라.

1996년 10월 11일
설교제목: 맡은 자에게
본문: 고전 4:1,2

3. 목도의 여행

바른 식사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그것이 생명이라면

먹고
마실수록
생명은 활기차야 하는데

날 가고 해 갈수록
기진 한 모습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뿐이다.

매일의 양식이
찢긴 살
흘린 피로 채워지면
생명은 영원한데

이 사실 밀는 이 너무 적고
살려고 먹는다는 변명을 비웃으며
먹다가 죽었다는 묘비명이
언제나 부끄럽다.

1994년 7월 28일
설교제목: 생명의 양식
본문: 요6:26-40

먹고 마시는 뜻

그 날
주님은
새로운 양식을 만드셨다.

먹어야 이어가는
구차한 목숨
세월에 떠밀려
먹어도 끝내는 죽는 것

주님은
그 날
십자가에서 조리(調理)한
새 양식을 주셨다.

식탁에 올려놓는
먹고 마실 모든 것
주님의 피와 살로
새 양식 되게 하여

세월을 되 오르는
죽지 않는 목숨
생명의 뜻을 풀어 주셨다.

시간에 밀려 세월이 늙어도
새 양식 안에 샘솟는 생명 있어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주신 새 양식 차려 놓고
늙지 않는 영생을
그 날까지 이어가며

가슴 메이는 감격의 묵상으로
떨리는 손을 모아
새 양식 먹고 마신다.

1994년 7월 29일
설교제목: 성만찬
본문: 고전 11:23-26

默禱의 旅行

성만찬 예식에 참례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는 것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세상에서 산다해도
예수 없이 내가 살 수 없고
나 없이 예수님의 드러날 수 없는 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로 하여 욕이 된다면
나는 또 한번 예수를 죽이는 사람

마음은 갈바리에서 멀고
생활은 욕심이 다스리는 모습인데
성찬을 받으며
떨리는 내 손

오늘도
주님의 떡과 잔을 들고
진정 나를 죽이고자
눈물로 먹고 마시며

그날
그 저녁의 다락방으로
묵도의 여행을 떠난다.

1995년 3월 24일

설교제목: 살피고 분별하는 생활
본문: 고전 11:26-29

성만찬 기도

베드로의 밭을 췄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 밭도 췄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밭 내밀기 너무 창피하지만
주님 손이 췄기지 않으시면
내 밭을 췄을 곳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목욕을 하고
세파에 걸어 다니느라 밭만 더럽혀졌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왕 췄어 주실 바엔
머리와 몸까지 췄어 주옵소서.
걸만 췄어서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까지 췄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제서야
주님의 몸과 피에 참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개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가르쳐 주신 만찬을 기다립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소서.
형체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채 앉았으면
주님, 지금 용서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정직하게 용서하게 하소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두 번째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 때 주님의 부름에 곧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례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친히 살아 주셔서
주님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감히 감격하는 맘으로
성만찬에 참례합니다. 아멘.

1935년 9월 30일

설교제목: 회개하고 그날을 기다림

본문: 고전 11:27-29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죽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므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수의(壽衣) 칭칭 동인 채로
무덤 앞에 앞도 못 보면서 서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생명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걸어 다니는 걸음으로
주신 생명 더욱 넉넉하여지며
세월을 거슬러 올라
에덴까지 풍성하여집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오늘도 성취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차려 놓은 당신의 살과 피로
주린 배 같은 목 채우는 시간
다만 기념이기 전에
삶이 되게 하소서.
영원까지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1996년 3월 29일
설교제목: 생명을 풍성히 하려고
본문: 요10:10

산 기념

많은 기념들이
생명 없는 유물 되어
역사의 장식으로 남고

평생이
몇 줄 자서전과
사진 앨범으로
집안에 치장된다.

그런데
여기
표상이 이루어 영원한 기념이 된
생명 있는 사실이 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임을 아는
나날의 삶이 있고

흐르는 세월이 젊음이 되는
거슬러 흐르는 생명이 있다.

먹고 마시는 다반사(茶飯事)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으로 연결하는
구원의 산 기념들

오늘
주의 만찬을 예배로 행하며
주님의 지체(肢體)됨을 확인하는
살아 있는 이 기념들.

1996년 6월 28일
설교제목: 기념하는 마음과 생활
본문: 고전 11:26

새 포도즙

세상에 새 것은 없다.
새 것은 창조되는 것
창조주의 손안에
비로소 있다.

새 언약이
새 사람인 주님의 피로 되듯이
새 포도즙은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새 포도즙을 창조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 것을 없애고
부활로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포도즙을
함께 마시겠다는 약속으로
뜻을 알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부활의 생명을 가진다는 보증을 주셨다.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의 그날까지
기념하는 뜻은
새 생명으로 일어날 확증으로 사는 것

하루하루가
부활로 이어지는 삶이 되도록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며
이것이 날마다 참된 삶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기를 빈다.

1996년 9월 27일
설교제목: 새 포도즙
본문: 마26:29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구슬피 울며 끌려가는 양

풀죽은 얼굴로

양을 끌고 가는 사람

벌써 몇 마리의 양을

이처럼 끌고 갔는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마음으로

찢는 아픔으로

피를 토하듯 고백한 죄

양은 구슬픈 울음으로

피를 쏟고

흰옷 입은 제사장의 손끝으로

휘장에 뿌려지는 양의 피

속죄되는 죄

흘러내린 피의 강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발원하고

오늘

내 손끝에서 떨리는 잔

속을 찢어 내는 붉은 춥

맡간 영혼

십자가에 찢은 살로

한켜 한켠

새로 지어지는 몸

아, 이제는

임이 오시는 날

맡같게 투명한 몸으로

흰옷 입고 맞이할 수 있으리

갈바리의 의미가

영광의 부활로 열매 맺는 아침에

그 구슬픈 양의 울음이

감격의 눈물로 영롱히 빛나게 되리.

1996년 12월 27일

설교제목: 주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라.

본문: 레4:4-6

성만찬

지치도록
그처럼 지치도록
하루하루를
시달리며 살아도
사는 목숨이 아닌 것을
누군들 모르랴

그래도
살려고
잘 살려고
사는 목숨인양
그렇게 바쁘게 보낸 세월인데
목숨은 사그라질 뿐

그러나 여기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려고
오신 분 있어

대신 죽는 사랑으로
피땀 흘리신 고통
찢어진 심장에서
물과 피는 쏟아지고

오는 예배의 성전에서
살 찢은 떡 먹으며
심장 터쳐 쏟은 포도즙 마셔도

죽음에 길들여진
죽은 내 감각은
떨리지 않는다.
아프지 않다.

산 것 같은 죽음을
물어 버리고
죽은 것 같은
삶으로 일어났으면

1996년 12월 25일

설교제목: 성만찬

본문: 요6:51

성만찬 예배

먹어서 죽었는데 먹어야 산다하네
먹고도 죽을 그 것 살려고 먹으면서
죽음이 찾아 왔어도 죽은 것을 모르네.

갈릴리 들녘에서 이적의 떡 먹었어도
오 천 명 그 사람들 오늘 어디 살았는가
책을 것 구하는 사람 오늘 날도 들끓네.

그 저녁 마련하신 최후 만찬 깊은 그 뜻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여 드러냈네
이 이치 깨달은 사람 너무나도 적구나.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만찬 예식 예배 행하여서 기념하네
오 주님 속히 오소서 간절한 맘 불타네.

1994년 3월 25일
설교제목: 再臨의 架橋
본문: 고전 11:26

4. 복음 가족

울타리

뎁싸리 잘라다 울타리를 쳤어도
안팎은 분명하다.

마른나무 옆어서 매단 삽작이라도
울타리 넘나들지 않고
드나드는 식구들
내 집인 줄 안다.

가슴에 훈훈한
나무 마른 산 냄새
부엌에서는
군침 도는 인정이
넉넉히 익어가고

폭염도 찬바람도
빼앗지 못하는
껴안아 이어진
구수한 사랑이 바위처럼 든든하다.

행복을 무엇이라 뜻 매길 줄 몰라도
뎁싸리 울타리 안
어버이 자식 사이 미덥한 미소에
지는 해 뜨는 달이 두렵지 않다.

한 이불자락 속에 밭들 모으고
울타리 밖 얹은 일들 서로 나눌 때
밀고 사는 식구들의 의지하는 삶에
공경
돌봄
위로
쉼이 있다.

1994년 2월 18일
설교제목: 행복한 가정 생활
본문: 시128:1-6

복음 가족

아버지는 아침에 성경을 읽는다.
이른 아침,
어머니는 곧방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아침밥을 짓는다.

성경 읽는 소리
귓결에 꿈속처럼 들리다가
자식들 깨우는 소리 은근하다.

막내는 아장거리며 찬미가를 안고 오고
맡이는 책장에서 기도력(祈禱曆)을 뽑아 듣다.

생명이 약동하는 찬미 소리
가슴을 적시는 아침 만나
마주 보며 웃고 있는 식구들의 얼굴

하나님은 하늘에서 미소로 보시고
우리 가정 경건은
기도로 타오르고,

오! 갈바리의 사랑이
가슴을 훑어 내리는
이 정갈한 아침

아버지는 하나님의 얼굴
엄마는 새 예루살렘 같이 환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아침 시간

하루는
복음의 해석으로 열리고
지쳐 돌아온 저녁이라도
복음을 풀어 쓴 보람으로
마주 보는 얼굴들에는
충만한 희열이 있다.

이 복된 하루.

1994년 3월 18일
설교제목: 가정의 신앙 실천
본문: 창18:18,19

즐거운 아기

아빠 엄마가 만나기 전에
나는 없었다.

엄마 아빠의
분신(分身)으로
있는 나

내 생명은
엄마의 품에서 풍성해졌고,
아빠의 손에서 튼실해졌다.

나의 걸음걸이와
나의 춤얼거리는 말
내 코의 호흡은
아빠 엄마의 생명의 모습일 뿐

부모 안에서 나는 즐겁고
윤 수밖에 없는 설움과 고통에도
부모가 있어서
나는 안심할 수가 있다.

내 뒤에 든든히 선 아빠
내 옆에 포근한 엄마의 얼굴

나의 뒤풍거리는 걸음도
아빠 엄마에게는 대견하고
심술부리 투정에 드는 매도
넉넉한 사랑일 뿐이다.

아빠 엄마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라서
즐겁고 만족한
아기인
나.

1994년 4월 28일
설교제목: 아브라함(2)
본문: 롬4:16-18

어린이 봄현

목숨 걸고 갈무리해도
내가 살아 줄 수 없는 목숨
가슴에 안고 봄만 비릴 수는 없다.

아빠가 되었어도
엄마가 되었어도
다만 성장의 울타리로 있을 뿐
아이는 주어진 제 목숨으로 살고 있다.

다독여서 제것이 될까?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닌데
늦도록
부모는 그것을 모른다.

한 번 문 밖에 나간 뒤엔
맡조차 나눌 수 없는 한계
어느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까?

속을 들여다보는 눈은 없고
보이는 행동, 듣리는 말로
가늠하는 아이들은
무척 희미하다.

하루하루
술죽이는 조심으로 쇠선을 다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맡기는 지혜를 익히고,

오늘
당신이 주신 목숨
당신께 드리고
나 또한 기도로
당신 가슴에 쉬는 아이가 된다.

1994년 7월 8일
설교제목: 한 나
본문: 삼상1:19-22

가 족

성만 같은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데
분별이 되지 않는다.

서로 같은데
같지도 않다.

캔버스에
조화된 그림 같이
다르면서 또한
그렇게도 같다.

얼굴이 닮았는데
같은 모양이 아니고
맡치는 같은데
같은 맡은 아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도 그리고
아들딸도 그리고

빛이 어우러진 무지개이듯이
남편, 아내
자녀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가꾸어
사람됨을 거둔다.

가정은
그냥 남녀가 모인 곳이 아니다.
사랑으로 이어져
한 사람 같은 여럿이
한 이름으로 조화된 것이다.

1995년 5월 12일
설교제목: 가 정
본문: 눅 15:11-20

옛날 이야기

옛날

어느 촌사람이
아내에게 주려고
읍내 장에서
거울을 사 왔다네.

좋은 선물 들여다보던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네,
그 속에 남편의 소실이 웃고 있으니까.

"여깄,
장에 다니면서
언제부터 판 마누라 보았소?"

"아니, 여보, 무슨 억울한 소리를"
거울을 받아 듣고
놀란 남편이
"아니, 임자,
언제부터 샛서방을 두었노
드러내 놓고 안방에 불러 들었네"

아들 내외 다투는 소리에 놀란 아버지
빼앗아 든 거울 안에
웃고 있는 친구 노인을 보고 입을 헤벌리고
"아들아 네가 참 효자구나
이 애비 심심할까봐 친구를 데려 왔군"

거울 속에 자신은
언제든지 타인이라
거울 들여다보면서 남의 말만 하네.

옛 이야기 듣고
누가 웃을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
옛 이야기 사람인걸.

1995년 10월 27일

설교제목: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본문: 약1:22-26

애증의 조각

사랑과
미움의 교차 속에
부모와 자녀의 정은 깊어지고

귓속으로 녹아드는
피붙이의 진한 유대가
영원히 동여진다.

애증의 정 질이
다듬어 빛고 있는 모습대로
성장하겠지.

나는 나를 어떻게 빛어 놓았나?
거울 앞에 서서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들을 걱정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능력

하는 궁전의 쓰임새 있는 돌 하나 되도록
전능하신 이의 도움을
눈물로 구하며
스스로를 다듬어
바라보는 자리에 세운 뿐이다.

1996년 3월 22일

설교제목: 최선을 다하는 자녀 교육
본문: 잠22:6

이별 없는 곳

만나서 정을 나눈 사람마다
헤어지는 서러움을
눈물로 말하는데도
헤어짐이 없는 만남은
이 세상에는 없다.

저녁에 식구가 모여들어도
눈만 뜨면 이별인데
헤어짐이 없는 만남을
말인들 할 수 있으랴.

헤어져도
곁코
헤어짐이 없는 만남
아, 그런 만남이 있는 세상.

헤어지려도 헤어질 수 없는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먼 거리에 있어도
한 몸의 지체되어
한 생명으로 산다.

생명 강가에
모든 성도 모일 때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언제나 하나 된 기쁨으로 산다.

1996년 4월 26일
설교제목: 또 만남시다
본문: 계15:2-4

외국인

귀먹고
벙어리 되고
장님 되어 세월이 흘러간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외국인이 된 세월

바벨탑의 후유증은
치유될 줄 모르는 중증으로
역사 따라 확산되고

만리 이역
미국에서
코리언들은
맡 때문에 병을 앓는다.

주어진 기회들은
세월 따라 사그라지고
마주 보고 벙어리 된 부모와 자녀
씩 웃으며 돌아서는 이 아픔.

이제는
보고 듣는 언어가 되어
대를 물려 튼튼해지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정에서 찬양되고 경배 받게 하자.

나그네 세월 바쁘지만
영원한 언어
여기서 꼭 익혀야 한다.

1996년 11월 1일
설교제목: 언어에 담기는 신앙
본문: 마26:73-75

돈

너는 죄면술사
한번 너의 죄면에 걸리면
너는 신이 된다.

허망한 소원을 한껏 채워주면
열광하는 신도들의
죄면은 더욱 고조된다.

신심(信心)이 깊어지면
네게 충성하는 신도들은
대리석 얼굴 돌 심장이 되어
눈동자는 오직 네게 고정되고

부모도 형제도
능한 신을 앗으려는 원수일 뿐
친구도 의리도 팽개치며
너만이 유일한 지배자가 된다.

오 가공(可恐)할 기적이여
오직 홀로 세상을 다스려
찬란한 정금 머리로 앉았구나

프인 돌이 날아왔는데
언제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려나

네가 다만 졸(奴)으로 있을 때
비로소 정금으로
그 나라의 길이 되는데.

» “찬란한 정금 머리” “프인 돌”은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임

1994년 1월 20일
설교제목: 재정 관리
본문: 롬8:31-34

5. 사랑의 일방통행

시험의 돌

성전 짓는 마당에
쓸모 없이
돌 하나 앉아 있네.

터는 닦이고
주초들이 놓이는데
성가시기 짹이 없는
그 돌은 그대로 있네.

인부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돌
깊이 박힌
큰돌이라서
캐어낼 수 없는데

한 켜 한 켜
참여 가는 성전 모퉁이가
쓸모 없는 그 돌 위에 걸리고
그 돌 없인 성전은
지을 수 없었네.

그 터에 놓아 둔 그 돌
성전의 초석이었는데
성전 짓는 마당에 시험의 돌이 되어
거치고 넘어지는 인부들 아직도 있네.

그 돌 위에
성전이 완성되고
모든 진리
그 안에서 확실히 계시 뒀네.

1994년 7월 15일

설교제목: 우리의 밑음을 굳게 지키자
본문: 계3:10,11

부 활

때론

앞이 꽉 막히는
의문의 곧짜기에 이른다.
사방에 일어선 절벽

출구 없는 곧짜기에서
의식은
외롭게 헤매고

날 수 없는 아픔으로
쳐든 얼굴 위에
하늘은 비록 푸르러도
길이 없다.

오랜 기다림으로
조바심에 지쳐
조여오는 가슴의 통증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깻어지는 무릎
거기 날개가 돋는다.

오늘은
땅속에 묻히는 절망만 보여도
모든 대답을 들을 때가 있다.
날아올라
둘러 일어선 절벽을 넘으면

탁 트인 가슴이 있고
속시원한 눈물이 있고
자지러지는 만남의 대답이 있다.

그 때
오늘의 아픔이
환희가 된다.

1994년 12월 10일
설교제목: 대답을 들을 때
본문: 고전13:9-12

석별(惜別)

별이 하나씩 제 빛을 거두는 것은
새벽이 다가왔다는 신호일 뿐
기막히는 슬픔의 기별이 아니다.

흐르는 세월동안
수많은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빛을 거두고
밀실에서 쉬고 있을 때

태양은
장려한 거동을 위하여
아직은 검은 막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때가 되어
동쪽 하늘을
비친하는 소리가 들리고
금빛 실오리 한 빛살이 뻗어나면

검은 막이 걷히고
묘지들이 술렁이며
생명을 부르는 우렁찬 소리에
부활로 일어나는 무수한 빛살들

별빛, 소리 없이 거두던 때
동곡하고 오열하던 소리 소란했으나
이제는 환호하는 빛들의 소리로
때묻지 않은 새아침을 노래할 것이니

하여, 오늘
촛불처럼 타서 사그라진
찬란하지 않았어도 제 빛을 지키던 별 하나를
묵묵히 밀실에 안내하면서

촛농처럼 남은 서러운 가슴들이
울음을 삼키고
이렇게 찬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1994년 12월 20일

설교제목: 소망이 있는 그리움

본문: 사57:1,2

부 탁

주님은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구유에 가 보라고 하신다.

베들레헴에
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아로 차 있었을 뿐

자기 를 비우지 못하는 땅에
자기 를 벗어버리는 고뇌를
겟세마네에 가서 배우라고 하신다.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무소유로
표표(飄飄)히 살아도
몸 깊어 생명을 선물하는
그 삶을 배우라고 하신다.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전도를 한다고
자아가 죽은 것이 정녕 아닌데

아직도 스스로 속이면서
주님 탄생을 이기적으로 풀이하는
사망의 의식이
꼿꼿이 머리 쳐든 착각의 삶

주님은
부드럽게 손 내미시고
갈바리 십자가를 보라고 하신다.

굳복의 뜻을
거기서도 못 배우면
바로의 강팍의 올무에서 헤어 날 길이 없다고
측은히 내려보시면서
그 구유로부터 십자가까지
날마다 걸어보라고 하신다.

1994년 12월 24일
설교제목: 주님께 굳복하자
본문: 빌2:5-7

구 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삶과 죽음처럼 다르다.

이목구비가 정연해도
숨쉬고 숨 못 쉬는 것이 다르고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움직이는 것과 못 움직이는 것이 다르다.

감각이 있고 없고
분별이 있고 없고
생활이 있고 없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달라야 하는 존재들이
다르지 않으려는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달라진 존재들의 결과를 탐하는
이중적 죄가 홍수로 흐르는 교회

스스로 계신 분에게
참으로 바쳐진 사람은
거룩하신 그분이
있어라 하는 자리에 있으리라.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처럼 살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삶과 죽음처럼 엄청나게 다르다.

1995년 4월 16일
설교제목: 거룩하다는 것
본문: 삶전 4:1-3

이 슬

이 신선한 충격
풀잎마다
수은 빛으로 둥글게 맺혀 있는 은총

밤새
아무도 모르게
키는 조용히 커지고

금빛 햇살에
눈부시게 반사하는
이 순결이여

나루도
풀도
이슬 받아 자라서
만나로 맺히는 열매

밤새
아무도 모르게 대지를 덮어

아침
부스스 덜 깐 의식에
신선한 냉기로 스며
맑은 지혜를 일깨우고

아침빛 같이 맑은 얼굴로
밝은 나날을 펼쳐 놓아
열린 가슴들만 맞는
깨끗한 나날들.

1995년 6월 30일

설교제목: 이슬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
본문: 삼6:36-40

또 한번의 십자가

그날

빌라도의 관저 앞에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친 그들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아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수제자 베드로가
군사들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아니, 아니,

이 천년 교회 역사에, 무수한
믿는다는 무리가
역사의 시간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박고
다시 못박고

목사인 나도

예수님을
또 한번, 아니
무수히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교인 하나 하나가

못과 망치가 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주님은

너무 기가 막혀
차라리 잠잠히
오늘도 그 못박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를 쏟으신다.

이제는

이 찌르는 가시와 못이
주님의 영광이 될 때가 되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될 때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주님은
또 한번, 아니 무수히
기꺼이 오늘도
못 박히신다

1995년 7월 7일

설교제목: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한 것
본문: 호12:10

삶과 죽음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서
죽음을 현실로 맞았어도

호흡이 있는 동안
구조의 손길을 고대하는 애절한 귀기울임과
구조되리라는 소망은
현실을 외면한다.

쿵 쿵
작업하는
소생의 소리 들으며
흘러드는
빗물로 입술을 적신다.

호흡이 있는
열 하루,
열 사흘에
믿음은 응답되고
소망은 이루어져
생명의 위대함을 환호로 외치며
생활의 마당으로 간다.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떠나 보내는 이들의 오열도 모른 채
한 줌 흙으로
본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다.

삶과 죽음이
이처럼 극명하게 대조된
이 참사

호흡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나?

1995년 7월 14일
설교제목: 한 사람이 회개하면
본문: 눅 15:3-7

삶의 순서

시간은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다.

시간을 지나가는 삶이
시간의 질서를 헝클면서
삶의 순서를 뒤집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없듯이
삶의 순서가 바뀌면
인격이 도치(倒置)된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벽돌 한 장씩 차례로 쌓아 집을 세우듯
삶의 터전에
넉넉한 품을 마련하고
지친 사람들의
쉼 곳이 된다.

먼저
정말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제 눈에 들보 때문에
무릎 꿇고 눈을 찢을 것인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삶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간의 질서를 따라가지 못한다.

차례대로만
오가는 시간 속을
순서가 바뀐 삶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슬픈 역사는
어제의 일로 그쳐야 한다.

1995년 11월 17일
설교제목: 그리스도인 삶의 순서
본문: 마6:33

사랑의 일방통행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벌하는 대신에
스스로 벌받음으로 드러낸
사랑의 일방통행이었다.

한번만 지나가면서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고
달리는 세월의 바람결마다
그 진한 피 냄새
십자가의 사랑 냄새를 풍긴다.

엄마보다 더한 희생으로
죄인을 보듬어 살려 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타이르신다.

사랑의 질은 냄새에 취한 사람들은
용서의 용광로에 녹아
죄인도 원수도
사랑의 춘금으로 뭉친다.

한 해
또 한 해
세월은 달리는데

오늘도
그 질은 사랑의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보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신
지극한 권고가
점점 멀어지는 아픔을 안고

십자가 앞에
속절없는 눈물을 흘린다.

1995년 12월 16일

설교제목: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본문: 베전 4:7-11

총 말

고통이 있는 세상에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
고통의 끝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끝이 없는 사망은
지옥보다 무서운 고통이고
끝난다는 말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이다.

고통이 있는 세상에
총말은 소망의 성취
성취된 영생이다.

십자가 위에서
세월의 흐름을 멈추고
사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고

내 안에서
모두가 마지막 사람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총말은 죄의 총말이 되고
총말은 사망의 총말이며
총말은 부활의 소망이 되고
총말은 새 하는 새 땅의 이야기이다.

이 모든 이야기 보다
총말은 날마다 죽으므로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이다.

1996년 4월 5일
설교제목: 총말인
본문: 고전 15:45

정답

왜 살까?
고달픈 하루하루를
피나도록 경쟁하면서
왜 살까?

그래도 주어진 목숨
쉽게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도 생각해도 생명은 고귀하고
산다는 것은 엄숙한데

관호 안에
삶의 이유를 대는 정답을 넣으면
입신 양명일까?
부귀 영화일까?

온 천하를 소유해도
이 목숨 한번 잃으면
아무 것도 없는 데

죽어도 유익한 삶을 깨닫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으면
관호 안에 오직 하나 정답이 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한 그 삶의 의미를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늦기 전에 그 삶을 확실히 가졌으면.

1996년 6월 12일

설교제목: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본문: 빌 1:20,21

땅에 쓰시니

사형으로 정죄된 여인 앞에서
주님은 몸 구부려
땅에 음서의 글을 쓰신다.

돌을 든 의인들의 눈초리들은
오히려 주님을 조준하고 있는데
다시 구부려 땅에 회개하라 쓰신다.

타인을 정죄할 의인 하나도 없는데
정죄할 자격 갖춘 유일하신 주님
땅에 음서의 글을 쓰신다.
회개할 일 글로 쓰신다.

돌 든 의인들의 눈길을
손끝에서 쓰여지는 글을 보게 하시고
돌 던질 자격 없다 타이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만
은밀히 보여주는
회개의 글밭이 부담스러워

떨리는 손에 든 돌 맥없이 떨어지는데
폭로하지 않은 자비를 외면하고
곁에 같은 그 의를 감싸 안은 채
하나씩 하나씩 펴나는 정죄된 의인들

타인의 허물을
그처럼 달게 여기는
전도(顛倒)된 인성(人性)들
그 뒷모습 측은히 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

돌 맞아 죽었던 그 여인의
다시 산 눈길에 들어오는
눈물어린 주님의 그 눈길.

1996년 10월 18일
설교제목: 예수님의 마음
본문: 요3:17-21

복음의 오해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도덕이라고 듣는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
그를 떠난 것은 주검들이다.

주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로 생명을 드러내어
믿는 이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도덕도 윤법도
생명 있는 자의 것
오직 산 자에게만 행위가 있다.

자비의 천사들이
창조와 재창조의 생명을 다시 전해도
살아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냥
도덕과 윤법이라고 듣고 있다.

1996년 11월 15일

설교제목: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
본문: 계14:6-12

6. 믿음의 선인들

아브라함

그것은 절친한 친구의 목소리였다.
가장 여리게 들려와도
너무나 확실한 친구의 음성.

가슴은 떨리고
갈증이 전신을 조여와도
그것은 분명한 신의(神意)였다.

백세에 걸친 아들
그의 삶의 전부인데
번체로 드리라는
절친한 벗 그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설명 없이 견해 준 그 말
해석은 그에게 맡겨지지 않았고
다만 결단만을 재촉할 뿐

모리아 산 정상에서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삶의 전부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단의 칼을 들었다.

여호와 이레
신의가 침묵으로 암도하는 산정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

1994년 3월 11일
설교제목: 하나님의 뜻을 행함
본문: 롬12:12

이 삭

칼을 맞지 않아도
이미 피는 뿌려졌네.

아버지의 손끝에서 칼은 떨리고
묵묵히 눈을 감고
죽음의 순종을 이루는 아들이여.

조식으로 드린 기도가
제물로 열매를 맺었네.

언제나
묵상의 들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시간으로
사람을 탓하지 않도록
넓어진 마음

악한 세상에서
안전을 위하여
꾀부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는
하나의 인간이었어도

이삭은
피 흘린 제단에서
구주의 삶을 미리 보여 주면서

언약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계시의 책에
밝게 적어 놓았네.

1994년 5월 13일
설교제목: 이 삭(1)
본문: 창24:62,63

하 와

그 날엔

살을 저미고 뼈를 깎았다.

소망이

사망으로 보답된 고통의 날

"여자의 후손"에 담긴
깊은 뜻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기대로 하여
더욱 절리는 가슴

생명이 다만
이름으로 돌아와
가슴에 앉았으나
한낱 괴로운 엄마인데

십자가에서
잉태와 해산의 피를 흘리신
임마누엘이 있어
이름은 사실이 되었다.

산 자의 어미,
아, 산 자의 어미,
어머니로서의 하와는
태어나는 자식들의 진정한 생명

부활로 높이 앉으신
그분의 진정한 생명을 양육하는
언약의 어머니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엔
넘치는 기쁨으로 실체를 드리낼
생명의 예루살렘이다.

1994년 5월 6일

설교제목: 하 와

본문: 창3:20

언약의 아들

백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
외롭고 서러울 때
하나님은
웃음의 언약을 주셨다.

아들이 태어날 약속은
생명의 약속
터지는 기쁨은
웃음이 되었다.

언약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것

믿음은
창조주를 아는 자의
기쁜 춘종인데

이삭이 독생자 되었듯이
그 분 또한 독생자 되어서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새 조상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1994년 5월 20일
설교제목: 이 삭(2)
본문: 롬9:7-9

바나바

하루에도 몇 번은
우울해진다.

무언가
불을 것을 찾는 눈은
절망으로 물들고

불을 것이 없는
허허로운 사위는
적막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또는
일생에 단 한번쯤은
우리의 손을 볼드는
따뜻한 손길
정겨운 음성이

마음을 가라앉히며
우울의 창 너머
빛을 보게 한다.

바나바

그 목소리와 손으로 불들어 세운
술한 사람들
정이 하나로 모여
여기, 길목에
집을 세운다.

*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

1994년 6월 10일
설교제목: 바나바
본문: 행4:33-37

야 곱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터에서
언약의 후사의 자리를 촉여 빼앗고
도망자가 된 야곱

하룻밤을
재워줄 인정이 없는 들판에서
아프게 돌을 베고
죽어 있는 밤에

열린 하늘 언약의 우물에서
사다리 타고
흘러내리는 생명 있어

듣는 해와 함께
산목숨으로 일어나
끓은 무릎으로
돌 단 위에
옛날을 쓸어 놓고
하나님의 집 벨엘에 들어갔다.

밧단아람 나그네 생활
속아 온 이십 년은
심은 열매 거두어
생명을 가꾸는 세월 되었고

치름의 여울 압복
술막히는 그 밤에
고쳐 얹은 이름 이스라엘
언약의 샘물로 쪽는 그 이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마주 보고 살 수 있는
죽은 야곱 무덤 위에
영광으로 편 생명 되었다.

1994년 7월 1일
설교제목: 야곱
본문: 출2:24,25

가인과 아벨

정직하게 살피면
누가 참으로 제것으로 있는가
한낱 조상의 단세포일 뿐

선악과를 먹은 그날 이후
누가 있을 대로 있는가
다만 은혜의 가현(暇顯)인 것을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림, 하여
가현이 실체가 되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없는 자가 있는 자의 일을 할 수 없는
상식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도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드린다.

얼었으나 잃어버린 사람과
잃었으나 항상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형제이다.

1994년 8월 12일
설교제목: 가인과 아벨
본문: 요일 3:12

아 담

우리의 비극은
결과만 있다는 것

그래서
있다는 인식은
원인을 찾으려는
긴 몸부림의 시작일 뿐

계시를 부정하는 몸짓으로
날마다 쫓아 가는 어리석음은
한낱 미생물로의 먼 퇴화의 달음질이다.

의식이 눈뜨기 전에
젖을 빨아 넘기는 목숨과
어머니의 젖무덤을 쓰다듬던 고사리 손의
예민한 감각은 묻어두고

몇 줄 책을 읽은 지식의
말라빠진 덤불을 움켜잡고
아담에게서 먼 탈출을 시도하는
자기를 잃어버린 슬픈 군상들의 무덤에

참된 근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진정한 존재로
주님이 계시고

모두는
그 안에서 비로소
부활한다.

1994년 8월 19일
설교제목: 아 담
본문: 롬5:12-14

에 녹

어울려 걸어가도
함께 걸고 있지는 않다.

앞을 보는 사람
뒤돌아보는 사람
한 눈 파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 사람
.... 사람

그냥 보기엔
동행이지만
저마다
따로 걸고 있는 사람들

목적지는 같다는데
걸어가는 의도는 각양이고
걸음걸이 모양도 제멋대로 이다.

한 뜻으로 함께 걸는 행복을
잃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무거운 층량으로 다가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의 모본으로
손짓하고 있다.

1994년 8월 26일
설교제목: 에 녹
본문: 창5:21-24

7. 아름다운 교회

교 회

십자가가 첨탑 위에 있는
교회는 고즈넉하고
햇살은 십자가 위에서 졸고 있다.

종소리가 없어진지 오랜
예배당
찬송 소리는 메아리가 없다.

교인들이
제 일에 너무 바빠서
해체된 몸으로 주저앉은 교회

외쳐야 하는데
뛰어야 하는데
해체된 몸의 머리는
생각만 있을 뿐
한 밤의 묘지 같이 적막한 십자가

머리는 홀로 우는데
이상의 골짜기
해체된 뼈들처럼 모여 몸을 이루고
살아 뛰는 능력으로 일어섰으면

오늘도
교회당 첨탑 위 십자가에는
햇살이 쓸쓸히 걸려있다.

누군가
종 울려
이 고요를 깨뜨리기를
속울음으로
기다리는 교회.

» “머리와 몸”은
신약성경 예베소서 1:22,23절

1994년 4월 8일
설교제목: 교회와 신앙 생활
본문: 엡41-3

안내자

즐거운 여행은
좋은 안내와
바른 지도와
지도 읽는 교육에 있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행길에 있네

미래를
과거처럼 아는 분의 안내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의
안전이네

예언의 영
기록된 안내서
읽고 듣는 법 배운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안전이네.

1995년 6월 9일
설교제목: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본문: 대하20:20

진주 문

새 예루살렘 성문은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다.

주님은
그 큰 진주 하나씩을 만들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다.

동 서 남 북
모두 진주 한 개로 만들어진
어진 문들

주님은
그 큰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홀로 피땀을 흘리셨다.

오, 진주 한 개로 만들어진 대문들
십자가의 선혈이
열리는 돌찌 귀마다
잡은 문고리마다 자국 지고
그 큰 진주 문은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졌다.

어찌 그뿐이랴
십자가 지고 따르는
매맞고, 칼맞고, 불타 죽은
헌신하고 변화한 어진 사람들
그 역사의 고난들도
그 한 개의 진주로 만든 문에 스며들었고

모래알 같은 작은 아픔들이
조금씩 조금씩 토하는 피맺힌 아픔의 기도가
오늘도 진주 문을 만든다면
금년의 고난은 헛되지 않을 것인데

구유와, 갯세마네와, 갈바리
아무런 체험 없는 맨총맨총한 얼굴로
진주 문 들어가려는 이 파렴치한 마음을
어찌할까
아, 어찌할까!
또 한 해가 가는데.

1995년 12월 22일
설교제목: 진주 문
본문: 계21:21

열매 이야기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꿩레 덤불에는 꿩레가 맺힌다.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고
엉겅퀴에는 가시가 돋친다.

너무나 평범한 사실이라도
꿩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엉겅퀴라고 여기는 사람
없으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가슴을 친다.

해가 바뀌고
연륜의 가지에
열매를 맺을 때
으스댄 가시에
할くん 자국 어루만지며 불들고 우는 이웃들을 보고야
꿩레와 엉겅퀴인 줄을 어렵잖이 느끼는 무딘 감각들

세월은 흐르고
나무는 늙어가며 우람하여 지는데
창조주의 손에
남김없이 자신을 맡길 때
그때라야
포도나무로 변화된다.
무화과나무로 변화된다.

해를 거듭하면서
가지 더 많아지고
둥치 더 굽어지는 나무되어
꺾어지기 더 어려운 자리에 섰어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손에 맡기면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될 것이다.

극상품 포도
맡꾼 무화과
하나님께 기쁨
이웃에게 행복
열매로 즐거 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1996년 1월 4일

설교제목: 진정한 헌신의 생활
본문: 고전 6:19,20

리모트 컨트롤

우리는
누군가가 조종하는
리모트 컨트롤러에
조종 받고 있다.

숨쉴 틈도 없이 보내는 총신을
숨가쁘게 받아야 하는 수신기

태고부터,
보이지 않는 실상들이
보이는 실상을
리모트 컨트롤 하고

마음에 설치한 수신기는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

가슴에 묻혀 있는
나의 수신기는
어느 주파수에 맞춰 있는가

1996년 2월 16일

설교제목: 리모트 컨트롤(Remote Control)

본문: 롬6:12,13

돌 중에 하나

흔하지 흔한 돌,

언제든지 모을 수 있는 돌
모아 쌓으면 탑이 되고
다듬어 포개어 집도된다.

옮겨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정질 당하는 아픔이 있어도
홀로 있어서는 집을 이루지 못하는 제한 때문에
돌은 모아져야 한다.

진흙과 시멘트가 없어도
호리의 어긋남이 없이 들어맞도록
건축가의 손에서 다듬어지면
아, 이 완전한 조화

흩어져 있어
제멋대로 남남이더니
모아지고 다듬어져
한 건물이 되었고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의 돌마다 가장 중요한데,

혼자서도
속에 다양한 형상을 감추고
누군가
최상의 형상을 나타내 주기를 오래 기다리며
미동도 없이 굳건한 돌
오늘, 장인에게 드러나 다듬어져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꼳 지어지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궁전이 되었다.

그 흔하지 흔한 돌
그 흔한 돌 중에 나 하나.

1996년 5월 3일
설교제목: 성전 돌들
본문: 액2:20-22

낙원의 화원

햇빛과

물과

바람으로

땅에서

초목은 자라고

꽃도 핀다.

찌든 햇빛

스모그로 흐린 바람

폐수로 죽은 물을 먹고

초목은 독이 오르고

꽃잎은 이운다.

사람이 더럽히지 못한 산

시온산에서 흐르는 물로

물댄 동산을 만들고

시온의 숲에서 부는 바람으로

꽃을 가꾸자.

그 티없이 맑은 햇살을 먹고 열리는 열매

여기

낙원을 만들자

티없이 맑고 맑은 땅에

낙원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하자

생명 나무 열매들이 우람하게 하자.

햇빛과 물과

바람으로

땅에서 초목은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는데...

1996년 6월 20일

설교제목: 생명이 있는 부모와 자녀

본문: 시127:3-5

살았다는 것

이울고 시든 일새에
아직 생명이 깃들었어도
어찌 온전한 생명이랴

세포 하나 하나가
제 기능 다 하고
신경 줄 올올이
제 일 다 해야
제대로 산 것인데

이울고 시든 생명의
신음 소리 가득한 세상
깊은 풀 하나도
고통으로 시달린다.

그래도
복음은
회복의 소망을
신생의 날로
바라보게 한다.

십자가와 부활
약속된 온전한 그 생명
세포마다 활기차게 일어서고
실헛줄 올올이 생명으로 충일 하고
신경 줄 갈피마다 산 기별 스미면

아, 이 충만한 생명
이 충만한 신성
삶이 예수로 충일 하다.

1996년 7월 12일
설교제목: 온전한 생명을
본문: 요일5:11,12

산 교회

눈과 귀가 서로 다르고
코와 입이 서로 다르고
사지 백체가 각기 다른 모양이라도
제 자리에 있는
동일과 조화의 이 멋

신체가 괴리(乖離)되면
소멸되는 생명과
해체(解體)가 있을 뿐

교훈과 생활이 괴리되고
부모와 자녀가 괴리되며
전통과 가치는 매장되고
생명은 소멸된다.

다양한 기능과
서로 다른 모습으로도
조화와 동일로 생활을 이루는 몸처럼
말씀으로 연결된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자
아침 같은 싱싱한 모습으로
그 생명이 활동하게 하자

1996년 7월 19일

설교제목: 괴리 현상(乖離現狀)

본문: 눅6:46-49

사명

욕심으로 화장하고
말을 참는 강단

내리는 이슬
쏟아지는 비를
지붕으로 막고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교인들로 꽉 찬 교회

무릎을 끊고 마음을 열자
불같은 혀와
예시를 보는 눈과
세미한 소리 듣는 귀를 얻자

풀어주는 삶으로
있기만 하여도 말씀이 전파되는
광야의 소리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자.

1996년 8월 2일
설교제목: 자기 전도
본문: 고전9:26,27

승전비

승리자가 없는 전쟁
패배한 패자와
승리한 패자만 있을 뿐
그것이 텅 빈 역사이다.

무엇을 위한 짜움이었던가
죽음 앞에 모두가 서러운 존재
사랑하고, 위하고, 주고, 도울 것을

이제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자신에게 말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승리라고.

짜움을 걸면
요새(要塞)에 숨자
십자가에서 패배처럼 승리한
그 부드러운 전법을 익히자.

저 주어서 이기는 필승의 전법으로
영원한 승리의 역사를 써 보자.
이 황폐한 전장에
승리의 영원한 기념비를 꽉 채우자.

1996년 9월 20일
설교제목: 종교 전쟁
본문: 고후 10:3-7

조화(調和)

조화란
화음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홀로
정말 움아도
조화를 잃으면
이지러진다.

조화는
사납고 거친 들판에
흩바람이 불어도
아침을 기다리는 견딤으로
자아를 다스리고

햇살 머문 얼굴로
모두를 충만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화를 터득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거친 세월 속에
조화의 기호를
갈바리에 높이 세우셨다.

1996년 10월 25일
설교제목: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본문: 골2:20-3:4

남은 자손

운명 철학관은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은
철학관을 언제나 바쁘게 한다.

불안에 쌔인 모습으로
돌아서 나오는 얼굴들엔
귀에 담고
마음에 새긴 미래가
그래도 불확실한 표정이다.

미래 때문에
현재를 근심으로 보내는
우중(愚衆)들의 세상

그토록 알고 싶은 앞날이
겹겹이 비밀에 쌈여 다가오는데

인봉된 비밀의 열쇠를 들고
미래를 보는 눈으로
암초 같은 세파를 소망으로
항해하고 있는
남은 자손들.

1996년 11월 8일
설교제목: 우리 교회
본문: 딤전1:18-20

기다림

의식이 있을 동안
기다림은 지루하다.

잠들었다가
누군가 몸 흔들어 깨울 때
부시시 눈을 뜨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마주 보면

간절히 기다리던
그 얼굴
아, 그렇게 속히 올 줄 몰랐던
그 얼굴

의식 없이 기다리는 축복을
그때는 알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을 선포하셨다.

오늘도
기다림이 지루해진
지친 의식들이
회의(懷疑)의 화살을 쏘아대고

말씀에 낯설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눈들이
지혜를 옮기려하고 있지만

재림의 그날이
언제나 오늘임을 깨달은 마음들은
기다림의 날들이
순종의 환희로 충만할 것이다.

2002년 8월 3일
• 이 시는 설교를 시로 쓴 것이 아니다.

허전한 가슴

허전한 가슴
풀고 있던 것이
소리 없이 새어나가고
바람 빠진 풍선 같이
쭈그러진 마음

무엇인지 몰라서
잡히지 않는데
분명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네

정체는 밝혀지지 않아도
참 귀중한 것 같아서
가슴에 허공이 생기고
눈물이 그곳으로 흘러드네

무엇을 잃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할수록
공허해지는 현상

무너진 건 없는데
곧든 탑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힘을 다해 가꾼 농사
광풍에 다 날아간 것 같은 허탈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그것이 무엇일까

이럴듯 허전한 가슴
페워지지 않네

아무 것도 둘러막힌 것 없는 벌판에
홀로 선 이 막막한 느낌
아, 허전한 가슴
참 허전한 이 마음.

2000월 1월 26일

* 이 시는 설교를 시로 쓴 것이 아니다.

8. 기도의 행복

기원

노변(壩邊)의 훈기는
사람을 모은다.

냄새가 없어도
모여든 얼굴들
온기로 상기된 꽃들이다.

겨울 난로 가에는
웃음 띤 얼굴들
구수한 이야기가
향기로 피어오른다.

단물 솟는 샘 가에는
넉넉한 생명이 있어
같즈에 지친 사람들이 모인다.

가슴 적시는 맑 씨
끈끈한 정
흠뻑 취하는 시원한 생기
이 샘을 떠날 수 있으랴

예수 안에서
나도
솟는 샘
따뜻한 난로가 되도록
하늘을 우러러
손 모아 눈을 감는다.

1994년 2월 4일
설교제목: 생활과 전도
본문: 딤후4:1-5

나무 이야기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모여 있으면 숲이 된다.
스스로 걸어갈 수 없어도
모여 살 줄 아는 나무들

평생을

심겨진 자리에 불평 없이 서서
사철의 무상한 변화
몸으로 받아 죽이고
우람하게 크는 나무

생명을 토하여 대기를 정화하고
거친 들판, 힘한 산을
수려하게 꾸미고
안식의 그늘을 드리우는
아늑한 품

바람을 타면

밀어를 촉삭이는 인정이 있고
때로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파도치는 바다 소리

섭리자의 손길을 아는 자태
세상을 암도하는 외침으로 흔들리는 숲

오늘

밝은 햇살 아래
섭리자의 계시를 풀어주는 나무 밑에 앉아
한 그루 한 그루가
숲을 이루는 겹허를 배우며
손 모으고 엎드린다.

1994년 5월 27일

설교제목: 나무 이야기

본문: 사61:3

소 망

한 해가 저물었다.
한 해를 살았다 하지만
빛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것은
한 해를 또 죽은 것이다.

죽은 세월 길수록
회복되기 더욱 어렵고

진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해를 더할 수록 더욱 쪽을 뿐
결코 산 것이 아니다.

해의 갈림길에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이 다 뭉그러진
더러운 해골만 남아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아픈 가슴

지금도 생명의 손
치료하는 빛으로 있는데
해골을 살리신 이
창조의 호흡을 거두기 전에

아직도
주어진 또 한 해를
진정으로 살아서
새 아침을 맞았으면,

1994년 12월 30일
설교제목: 또 한 해가 가지만
본문: 롬 13:11-14

아름다움

조약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사람의 눈길엔
아무렇게나 흘어져 있는
자연의 자리 매김이

제몫을 다하는
현란한 조화로
아름답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을
맡없이 감당하는 사물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도움의 손이 필요한 곳에
성장(盛裝)한 미인도는
한낱 사족일 뿐

수반에 꽂 꽂히듯
매겨진 자리에 있어
숨쉬고
몸 움직여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멋진 어울림으로 아름다운
한 개의 조약돌이기를.

1995년 9월 14일
설교제목: 나는 어디에 속했나?
본문: 막21-12

솟아나는 셈

솟는 셈물에는 물결이 있다.
솟는 셈물 속에는
일그러짐이 없는 얼굴이 비칠 수 없다.

솟아나기 때문에
더없이 맑은 물이지만
솟는 힘에 일어나는 물결을 막을 수 없다.

둥글게 펴지는 물결 따라
비치는 모습이 일그러져 펴지는 것은
솟는 힘에 자기를 부인하여
맑아지는 경험일 뿐

한 해의 먼지들을 쟁어 내리고
끈질기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떠내려 보내면서
솟는 셈물은 여전히 맑고
솟기 때문에 가라앉을 앙금도 없다.

마음에 솟아나는 생수의 셈 터지면
같증 없는 나날을 푸근하게 산다.
언제나 물 댄 동산 같이
사위를 첨으로 덮고
맑고 깨끗하게 주위를 단장하며 풍요롭게 한다.

솟아나기 때문에
비친 얼굴 일그러져 물결 따라 사라져 가고
솟으며 그리는 둥그런 물결이
가장자리까지 미치면
온전히 맑은 셈물로
앙금 없이 깨끗하게
때묻지 않은
또 한 해를 살리라.

1995년 12월 28일
설교제목: 솟아나는 셈
본문: 요4:13,14

연습하는 삶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면
일생도 바르게 산다.

숨을 쉬는 동안
바른 걸음을 연습해야 한다.

하루하루는 바쁘게 가고
걸음걸이 힘겨운 철이 이르면
하루하루를 지나온 대로
우리의 모습 거울텐데

아직
빛이 있는 동안
말씀 따라
예수님 답기를 연습해야지

피 흘린 아픔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음성 따라
동행하며
오직 하루
하루씩만
말씀대로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지.

1996년 1월 26일
설교제목: 교육과 연습
본문: 딤후3:14-16

꽃이고 싶네

향기가 없는 꽃은
색깔로 뿐낸다.

그 현란한 색채에도
별, 나비는 외면하고
지나가는 바람도
싫어 나를 것이 없다.

곱지 않아도
향기 지닌 꽃
실바람도
싫어 흘날리는 향분에
별, 나비 몰려들고

코끝에 스미는
은은한 향기에
가슴 가득히 쉼이 고인다.

굳이 오라 하지 않아도
곁에 다가가 앓고 싶다.

향기 없는 꽃은
색깔로 뿐내어도
고운 빛 맵시 없어도
향분이 있는 꽃
그 한 송이 꽃이고 싶다.

1996년 7월 5일
설교제목: 즐거하는 신앙
본문: 갈6:14

박제(剝製)

전시관에
멋진 솜씨로 박제된 표본들이
진열되어 있다.

관중들은
박제들을 둘러보며
찬탄을 해도
박제들은 반응이 없다.

널브러진 삶의 공간에서
생명으로 뛰놀던 자유는
죽음의 틀에 묶이고
한낱 전시품으로
유리창 속에 갇혀 있다.

교인들은
죽은 사자 되기를 고집하는 자세로
신앙은 박제가 되고
한갓 종교로만 전락하고 있다.

자율 하는 생명 되게 하려는 열망이
십자가에서 피로 쏟아졌는데
박제로 전시되기를 고집하는 저항으로
스스로를 속박하는 교인들

생명을 주셨는데, 왜
박제가 되었나
이 시간 가만히 거룩한 손앞에
박제된 모습 놓고
부활의 그 생명 다시 일기를 열망하여
간절한 맘으로 두 손을 모은다.

1996년 7월 27일
설교제목: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본문: 마9:17

기 도

이야기 할 데가 있는 행복을
과소 평가하는 세월 속에 산다.

좋은 일, 담담한 일,
원통한 사정을
해결이 없어도
털어놓으면
속 시원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약점 잡고 덕보려는
약삭빠른 눈동자를 앞에
속을 태우는 지혜가 앞서고
이야기는 밑실에 쌓인다.

하나님은
마음을 트고 쏟아 놓는 모든 이야기를
황금 그릇에 받으신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찮은 조각 이야기라도
그분은 황금으로 여기신다.

삶이 고통으로 얹어져도
외쳐 불러 메아리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하고픈 말을
언제나 금쪽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계시니
어찌 기도하지 않으리

호흡마다 생명의 기도되어
전능하신 이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아, 이 특권
이야기 할 데가 있는 이 행복.

1996년 11월 29일
설교제목: 기도하는 특권
본문: 계5:8

크리스마스날의 기도

한적한 들판에는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가 선포되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아기는
강보에 쌈여 구유에 누웠다.

구주가 탄생한 것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어두운 마을

만민의 구주는
구유에 누운 것을
표적으로 삼았고

목자들은
하늘의 소식 듣고
분주한 걸음
들뜬 음성으로 구주를 찾으며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다.

오욕과 전쟁의 세월은
구유에 누운 아기로 하여
끝날 것인데

아직도 어두운 마을
어두운 사람들
마음은 이욕으로 충일 하고
구주는
여전히 문전 박대를 당하는 세월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화려해도
주님 머리 둘 곳 없는 마음과 마음들이
들뜬 음성으로
'고요한 밤'을 시끄럽게 노래하고 있다.

고요한 들녘 같은 마음으로
값비싼 여관방은 못되어도
주님 누우실 가난한 구유를
오늘 내 마음에 마련하기를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빈다.

1996년 12월 19일
설교제목: 구유에 오신 주님
본문: 눅2:6,7